

### 빅히트 뮤직, 글로벌 프로듀서 공모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4세대 K팝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소속 사 빅히트 뮤직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활약할 프로듀서를 공개 모집한다.

빅히트뮤직은 11일 'NNC(Next New Creator)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2023 빅히트 뉴 크리에이터 워드 빅히트 뮤직(Next New Creator with BIGHIT MUSIC)' 이하 '2023 NNC' 을 연다고 공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팝, 힙합, R&B 뮤직 특화 트랙 프로듀서를 발굴하는 오디션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성별, 경력,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팀 단위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부



▲ 빅히트 뮤직에서 글로벌 프로듀서를 공모한다. 포스터=mnc.hybeaudition.com

터 10월23일 오후 2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데모를 2~5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개인/팀은 창작 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빅히트 뮤직 인하우스 프로듀서 영입 대상자가 된다. 특히 LA 거주 지원자에게는 현지에서 하이브 소속 하이레벨 프로듀서와 작업할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https://mnc.hybeaudition.com/?lan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빅히트 뮤직이 열고 있는 'NNC 프로젝트' 는 유망 신인 프로듀서를 발굴하고 음악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트와이스 '레디 투 비', 미 롤링스톤 선정 '2023 베스트 앨범'

트와이스가 미니 앨범 'READY TO BE' (레디 투 비)로 미국 유력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선정한 '2023년 베스트 앨범' (The Best Albums of 2023 So Far)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JYP Entertainment는 지난 9일 공식 SNS를 통해 " 'READY TO BE' 가 롤링스톤지의 2023년 베스트 앨범에 올랐으며, 이 목록에 오른 K팝 걸그룹 앨범은 이 앨범이 유일하다." 고 전했다.

롤링스톤은 'READY TO BE' 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음악 장벽을 허물었다. K팝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그룹 트와이스의 자신



▲ 트와이스 레디 투 비 자켓 이미지. 사진=JYP엔터테인먼트

감이 엮보이는 앨범이다. 모든 트랙이 첫 음부터 리스너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다." 고 호평하며 집중 조명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7일과 8일 영국 런던에서, 11일 프랑스 파리, 13일~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첫 유럽 투어 무대에 오른데 이어 오는 23일~24일 태국 방콕, 30일과 10월 1일 필리핀 불라칸, 11월 4일 호주 멜버른, 12월 16일~17일 일본 나고야,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7일~28일 일본 후쿠오카, 2024년 2월 3일 멕시코 멕시코 시티, 6일~7일 브라질 상파울루 등지에서 역대급 공연을 이어간다.

### "테일러 스위프트 전담 기자 찾습니다"



▲ 지난 8월 잉글랜드의 SoFi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콘서트 공연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moviebloc.com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인 '에라스 투어' 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종합 일간 USA투데이와 테네시주 지역 신문이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전담 기사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고엔 "현재 진행 중인 스위프트 투어와 다가오는 앨범 발매에 대한 흥분을 포착하는 동시에, 스위프트의 음악과 경력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추진력 있고 창의적이며 활기찬 저널리스트를 찾는다." 고 돼 있다.

이어 "우리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한 콘텐츠를 통해 전국적인 반응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편견 없는 목소리를 가진 저널리스트를 찾고 있다." 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비디오에 능숙하며, 활기차면서도 소셜미디어에 능한 전문가 면모를 갖춘 저널리스트여야 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스위프트 전문 기자는 USA투데이와 테네시 지역 신문 등을 통해 200개 이상의 지역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사가 정부 고위 관료나 국가의 원수가 아닌, 스위프트와 같은 유명인 한 명을 담당하는 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